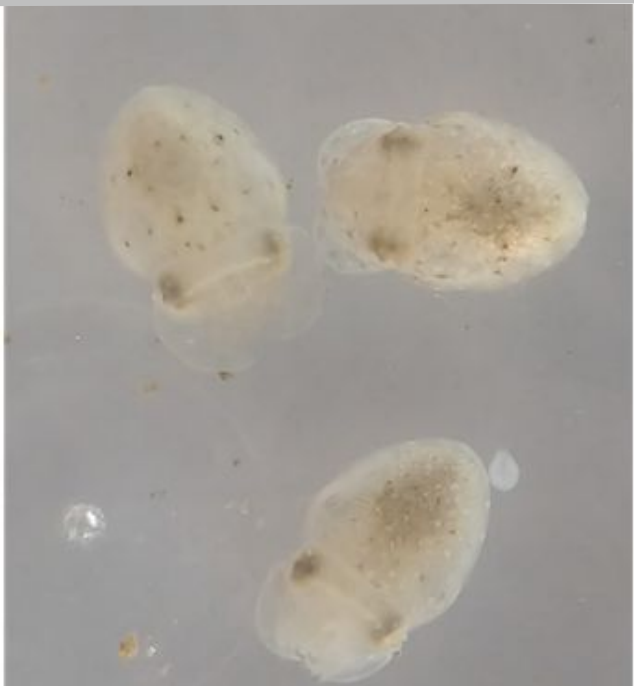



등록번호	수산자원연구소-5772
등록일자	2019. 07. 25.
결재일자	2019. 07. 25.
공개구분	부분공개(5)

★연구사	주무관	지방서기관	
강선영	고안식	2019. 7. 25. 신정만	
협조자	운영지원담당 문동현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2019년 갑오징어 시험연구 방류 사업 원료 보고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갑오징어 시험연구 방류사업 완료 보고

두족류의 대표적인 고급 식재료인 갑오징어의 급격한 어획량 감소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종자를 생산 방류하여 갑오징어의 자원량 증가를 도모하고자함

I 방류 개요

- 품종 및 사업량 : 어린 갑오징어 13.8미(전장 1cm이상)
- 방류일시 및 해역

	방 류 일 시	방 류 해 역	방 류 수 량
1 차	2019. 7. 10	중구 삼목해역	5만미
2 차	2019. 7. 17	옹진군 영흥해역	6만미
3 차	2019. 7. 23	옹진군 영흥해역	2만미

- 운송방법 : 포터 → 어선
- 방류방법 : 선상 방류 및 육상방류

II 행정 사항

- 교 통 편 : 관용차(방류물품 등 운송) 포터 1대
- 방류 선박 : 어선지원(중구청), 관공선 연구1호(영흥해역)
- 방류 홍보 : 홍보자료 해당부서 통보 및 보도자료 협조요청(대변인실)
- 기타 홍보 : 홍보용 현수막 부착(수송차량 등)
- 사후 관리 : 방류 후 관찰 수협 및 어업인들에게 방류 내용 및 자원조성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 실시

III 방류 해역도



갯오징어 방류 해역

IV 표본 측정 및 방류수량 검수

○ 표본 측정

- 방류크기 범위 : 전중 0.05~0.1g (평균전중 0.07g)

○ 방류수량 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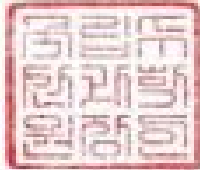
회차	계량 회수(회)	총무게(g)	개체당 평균 무게(g)	방류수량(미)	총수량(미)
1차	78회	3,585	0.07g	51,214	138,169
2차	95회	4,348		62,108	
3차	46회	1,739		24,847	



전염병검사 결과

※검사결과(2019. 7.10)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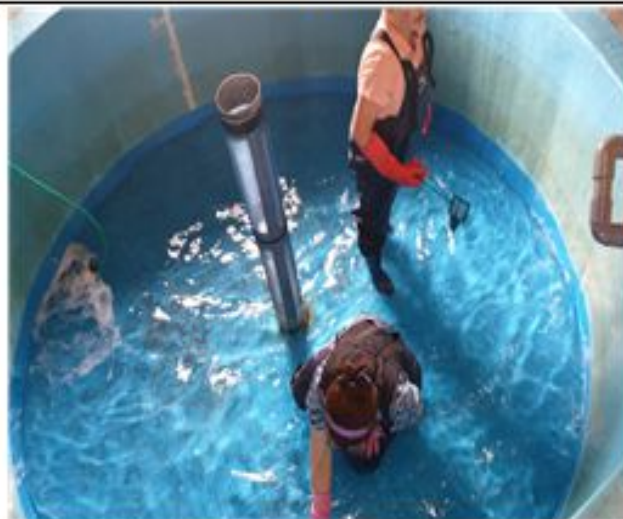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신청인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접수일 (시료접수일)	2019. 7. 3. (2019. 7. 4.)
검사시료	통종 감오징어 (자체생산 / 어류사육용 5-3, 5-4, 3, 6, 7번 수조)			크기(cm)	0.6 ~ 1.1
임상검사 결과	육안 관찰 양 호				
	그 밖의 검사 결과 특이적 질병 증상 없음				
정밀검사 결과	검사항목	합격기준	검사결과	판정	비고
	원반점병 (WSD)	불검출	불검출	합격	
종합의견	상기 시료(감오징어)에서 검사대상 병원체가 불검출 되었음.				
검사기간	2019. 7. 4. ~ 2019. 7. 10. (5일)				
<p>※ 이 질병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부터 15일입니다.</p> <p>· 검사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연락처 : 032-745-0741)</p> <p>「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류수산생물의 전염병 검사 결과를 증명합니다.</p> <div><div>국립수산과학원장</div><div></div><div>2019 년 7 월 10 일</div></div>					



어린갯오징어 무게측정



방류전 어린갯오징어 수거보관



어린갯오징어 수거



어린갯오징어 포장



1차 방류



1차 방류



2차 방류



2차 방류



3차 방류



3차 방류



중부일보

2019년 07월 10일 (수)
종합 03A면



9일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수산자원 증대 및 어업 소득증대를 위해 강화도 후포항에서 어린들
과 치어를 방류하고 있다. 사진=전현시

수산자원, 주꾸미·갯오징어 등 치어 방류

수산자원 회복·소득 증대 일환
강화 후포항·중구 삼목항서 진행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가 연안지역 수산자원을 위한 치어방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연구소는 9~10일 양일간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강화군 후포항 해역에 조피볼락 25만마리와 중구 삼목항 해역에 주꾸미와 갯오징어 20만마리를 방류한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조피볼락, 주꾸미, 갯오징어는 지난 4월과 6월 성숙한 어미로부터 건강한 치어를

산출시켜 실내에서 사육한 후 전염병 검사를 마친 우량한 종자이며, 앞서 지난 4~6월에는 어린 꽃게, 참돔, 주꾸미 등 178만마리를 방류한 바 있다.

인천수산자원연구소 관계자는 "해양 환경의 변화와 무분별한 남획 등으로 수산자원이 점차 감소해 가고 있어 고부가가치가 높은 꽃게, 참조기, 주꾸미, 해삼, 바지락 등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는 경제성 어종 위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자원 회복 및 어획량 증가에 따른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영제기자

경인일보

2019년 07월 11일 (목)
종합 01A면



어린 갯오징어·주꾸미 방류 10일 인천시 중구 영종도 삼목선착장 인근 해역에서 인천수산자원연구소 관계자들이 어린 갯오징어들을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이날 방류한 약 20만마리의 주꾸미와 갯오징어는 지난 4월과 6월 성숙한 어미로부터 건강한 치어를 산출시켜 실내에서 사육한 것으로 전염병 검사를 마친 우량 종자다. 성어가 되면 자원 회복 및 어획량 증가에 따른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조재영기자 jhc@kyeongin.com